

# “아이 나올 것 같아요” 구급차서 출산 도운 구급대원들

### 남부소방서 오염식·고세영·송형민 대원 긴급이송 5분 만에 귀한 생명 탄생 평소 훈련 덕분에 능숙하게 출산 준비



광주 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 오염식(왼쪽부터)·고세영·송형민 대원이 비상 상황을 대비해 출산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지난 19일 오전 7시께 산모 최모(40)씨의 보호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최씨의 출산 예정일은 10일가량 남은 상태였지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오면서 곧 출산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분만 세트를 챙겨 단숨에 달려간 광주 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 오염식·고세영·송형민 대원은 최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병원으로 긴급이송을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아기의 머리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대원들은 노대동 순환도로 진입로 갖길에 구급차를 정차해두고 출산을 준비했다.

대원들은 평소 이런 일을 대비해 여러 차례 훈련을

대원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호흡과 체온 유지 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최씨의 가족들은 119안전센터로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센터 측은 미역과 출산용품 등을 전해주며 귀한 생명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해줬다.

현장에 출동했던 고세영 대원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주종훈 진도물산 대표, 법무보호대상자에 물품 지원



주종훈(진도물산 대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위원이 최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주·부식(쌀·멸치·미역 등 228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제공>

# 배우 수애, 취약계층 코로나19 극복위해 1억원 기부

배우 수애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배우 수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과 그들의 가정을 위한 장학금 및 생계비, 코로나19 예방키트 지원 등에 사용된다.



수애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사태 극복, 독거노인방한용품지원 등을 위해 각각 5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 행보를 보여온 바 있다. 한편, 수애는 JTBC 드라마 ‘공작도시’의 주연으로 올 하반기 안방극장을 찾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불교 사회운동’ 헌신 월주스님 영결식 엄수...“이 시대 진정한 보현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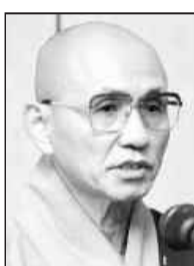
불교 사회운동에 헌신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던 월주스님의 영결식이 26일 엄수됐다.

이날 전북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서는 불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삼귀의례로 시작한 영결식에서는 현대사 한복판에서 사회운동을 펴며 깨달음을 구했던 고인의 행장과 생전 육성법문이 영상과 함께 소개됐다.

화면 속 월주스님은 생전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물 개발사업을 했던 일을 두고 “도와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환하게 웃었다.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는 스님의 법문은 교묘한 식장안으로 울려 퍼졌다.

월주스님 상좌(제자)이자 장의위원장인 원행스님은 영결사에서 “오늘 저는 저의 은사이자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적요의 세계로 보내드려야 한다”며 “출가사문으로 생사와 별리의 경계는 마땅히 넘어서야 하겠지만, 스승을 보내드려야 하는 이비통한 마음, 가늘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그는 “대종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보현보살이었다”며 “나의 삶은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자가 지켜본 대종사의 삶은 실제로 그러하셨다”고 돌아봤다.

원행스님은 영결사 말미에 눈물을 보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태공당 월주 대종사이시여, 속한사바(速還娑

婆)하소서”라며 스승이 이 세계로 속히 돌아와 증생제도에 나서줄 것을 염원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법어에서 “대종사께서는 산중불교만이 아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증생교화를 위해 몸소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증생과 함께하며 동체대비의 보현행원을 시험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태공당 월주 대종사 각령 전에 법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억겁에 매하지 않고, 진리의 삼매락을 누리소서”라고 기원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행된 영결식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대선주자도 자리에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바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결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스님과 신도들은 무더위 속에도 식장 밖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추도 장면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김욱현 전 시장 별세

시장 재임중 컨테이너 부두를 준공해 광양항을 부산과 인천항에 이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국내 3위 무역항으로 키운 김욱현(사진) 전 광양시장이 24일 오후 1시30분께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

1933년(호적상 1934년)생인 고인은 1969년 공직에 투신, 1983~1991년 관선장성·영암·나주·고흥·화순군수를 거쳐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양시장 선거에 당선됐고, 1998년 재선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인 1997년 12월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준공했고, 2001년 12월에는 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를 완공했다. /연합뉴스



2002년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순천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광양시 태인동 김 시식지 유적보존회장으로 활동했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김보현(1924~2006) 전 체신부 장관이 친형이다. 유족은 아들 김성환(사업)·김수환(달로이트인회계법인 상무)씨와 딸 김민경(한양대 건축학과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동광양장례식장 2층 1빈소(특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26일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올림픽 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곳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50 2020 도쿄올림픽 <양궁/태권도/펜싱/유도/수영/사격>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여기는 도쿄 <양궁/펜싱/수영/사격>		10 SBS 도쿄올림픽 <양궁/펜싱/유도/태권도/수영/사격>
10	00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수영, 조정>			
11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5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00 여기는 도쿄 <펜싱/유도>		30 SBS 도쿄올림픽 <펜싱/유도/태권도>
1				
2	0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탁구, 핸드볼, 태권도, 럭비>		30 2020 도쿄올림픽 특집 뉴스 외전	
3		00 KBS 뉴스타임 10 여기는 도쿄 <사격/양궁>	00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여자예선, 대한민국:네덜란드/태권도/양궁/사격/유도>	
4				50 SBS 도쿄올림픽 <유도/여자핸드볼/양궁/수영>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	00 여기는 도쿄 <유도/펜싱/수영>		
6	0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50 MBC 뉴스데스크	
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20 2020 도쿄올림픽 <배구/여자예선, 대한민국:캐나다/펜싱/태권도/수영>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05 KBC 8 뉴스 20 SBS 도쿄올림픽 <여자배구/태권도>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여기는 도쿄 <배구>		
10	00 시사토론 '10' 5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1	1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30 랜선 장터(재)	30 라디오스타 스페셜	30 골프월전 편먹고 공치리(재)
12		45 이미테이션(재)		50 도쿄 투니잇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음 6월 18일 丙子) ☎ 010-9790-8237

<p>36년생 본의 아니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판도이다. 48년생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자. 60년생 초심으로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성사된다. 72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잠자코 있는 것이 백 번 낫다. 84년생 애초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96년생 세심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27, 82</p>	<p>42년생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사필귀정하리라. 54년생 한시도 쉴 수 없는 숨찬 하루가 될 것이다. 66년생 대세에 순응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78년생 여유를 갖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이면의 처지와 환경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판세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10, 88</p>
<p>37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 되면서 지루하리라. 49년생 귀인의 방문이 있을 것이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 61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이가 생긴다. 73년생 연설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85년생 절실히 필요로 해왔던 것이 때맞추어 생긴다. 97년생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2, 91</p>	<p>43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량에 불과하니 크게 기대하지는 마라. 55년생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7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신의 노력을 해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79년생 재물운이 특별히 좋으니 재수발원하여 보라. 91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03년생 생나리하게 드러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51</p>
<p>38년생 임금 색깔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50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보라. 62년생 다양한 측면에서 큰 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4년생 다각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노라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86년생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69</p>	<p>32년생 방심하고 다닌다면 칼림들에 넘어질 수도 있다. 44년생 주머니 받기니 허며 박자가 잘 맞겠다. 56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68년생 순식간에 날 살피야 하느니라. 80년생 목전의 사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92년생 부단한 탐색과 준비가 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2, 93</p>
<p>39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과가 클 것이다. 51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63년생 일관된 노력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으리라. 75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87년생 기왕이면 호환성을 따는 것을 선택하자. 99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 수용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3, 80</p>	<p>33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45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57년생 목표를 향해 서둘러 움직이는 단계에 놓여 있다. 69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81년생 애써 시도 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93년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41, 68</p>
<p>40년생 아예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2년생 북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64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여건 조성부터 하고 보라. 76년생 지속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00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행운의 숫자 : 11, 53</p>	<p>34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46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58년생 만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면 더 좋다. 70년생 아차 하면 당장니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82년생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 너털웃음이 절로 나는 경사가 보인다. 94년생 모순 구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4, 97</p>
<p>41년생 외면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5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65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77년생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할 것이다. 89년생 무궁무진한 변화의 면모이니 기민하게 대응 하라. 01년생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45, 86</p>	<p>35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47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니라. 59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확실한 인정받을 수 있다. 71년생 반추해 본다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83년생 생산성이 없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낫다. 95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경정하리라. 행운의 숫자 : 34, 84</p>